# 见于知此到第二至早转时全时



#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 발인

1월 9일 오전 9시 순천향대학병원

■ 영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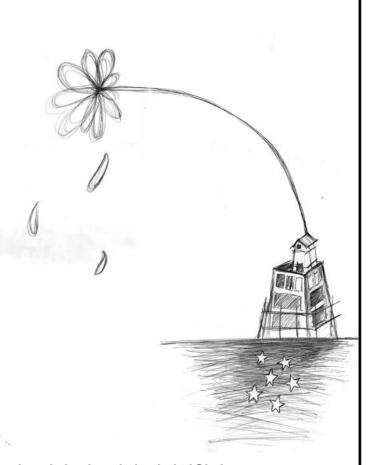
1월 9일 낮 12시 서울역광장

■ 노제

1월 9일 오후 3시 용산참사현장

■ 하관식

1월 9일 오후 6시 마석 모란공원



'용산참사 철거민'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故 이상림 열사 1938년 충남당진 출생 용산4지구 상공 철거민 대책 위원회 고문 2008년 3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전재숙 여사, 2남(성연, 충연)1녀(현선)



故 **양회성** 열사 1952년 전남순천 출생 용산4지구 상공 철거민 대책 위원회 철거민 영세 상가 세입자 2008년 3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김영덕 여사, 2남(종원, 종민)



故 **한대성** 열사 1956년 강원화천 출생 경기도 수원시 신동 철거민 대책 위원회 조직부장 2008년 6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신숙자 여사, 2남(승균, 황룡)



故 이성수 열사 1959년 경기시흥 출생 경기도 용인 신봉 철거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2008년 2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권명숙 여사, 2남(상흔, 상현)



故 **윤용헌** 열사 1961년 충남천안 출생 서울시 중구 순화 철거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2005년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 [유족] 부인 유영숙 여사, 2남(현구, 상필)



## 님들을 우리 심장 깊이 품고자 합니다.

양회성열사님 윤용헌열사님 이상림열사님 이성수열사님 한대성열사님 "여기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열사님들은 사람이기에 망루에 올랐고 저희들은 사람이기에 1년간을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온몸으로 맞서는 자가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인간적인 세상이 너무 슬프고 화나고 용납할 수 없어 울고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열사님들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님들은 지난 1년간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용산남일당을 지키셨고 자본과 폭력에 밀려 쫓겨난 철거민들과 함께 하셨고 민생, 인권,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곳에도 열사님들은 계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열사님들은 우리의 눈물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고 용기와 힘이 되어 사람사는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님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님들이 벼랑 끝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때,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고통 속에 산화해갈 때,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한 사람들입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님들은 물질중심의 가치관과 생존경쟁의 아귀다툼 속에서 갈수록 사라져가는 인간성을 일깨워주고 사람냄새가 풀풀 풍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용산현장에 오면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과 용기와 인내와 희망을 배우면서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평화의 세상을 꿈꿉니다. 님들을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평등평화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고이 잠드소서. 아직도 용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살인적인 재개발정책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유가족들의 눈물과 절규와 고통을 뒤로한 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님들이 만들어준 귀한 벗들이 이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옥에서 님들을 보내야 하는 동지들이 눈에 밟히시겠지만 그들이 우리 곁에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다시 용산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망루를 세우겠습니다. 탐욕과 오만과 파렴치로 똘똘 뭉친 자들의 횡포와 무례함과 살육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생존권을 절규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님들을 우리 심장 깊이 품고자 합니다.

열사들이여, 우리 안에 평등, 평화, 민주주의로 늘 함께 하소서.

상임장례위원장 이강실 조희주



# 용산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지난 밤 주먹이 떨려 잠을 못 잤습니다. 틀림없이 중학교 교실까지는 들어갔는데 내 책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내 책상은요"그랬는데 빌뱅이라고 때려 깨어보니 흠뻑 젖은 꿈. 속이 언짢 아 지나가다 빌뱅이로 모는 녀석하고 붙었는데 싸울 줄을 몰라 실컷 주어터지던 그 겨울이 겹쳐왔던 겁니다.

용산의 노여움은 이명박 정권의 학살입니다. 거기에는 나라 권력을 사용화한 범죄까지 더한 학살입니다.

이명박이 참된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가 어질지 못한 탓입니다. 용서해주세요"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런 뉘우침을 못 받았는데도 우리 열사들을 땅에 묻어야 한다니 분해서 잠을 못 잔겁니다.

우리 열사들이 올라간 데가 어디입니까. 오매 사층 집, 거기서 총칼을 들었습니까. 기껏 주먹뿐인 다섯을 경찰관 천육백, 특공대와 용역깡패까지 이천도 더 되는 병력이 갖은 흉기를 다 들고 자근자 근 학살했으니 그게 바로 폭도. 폭력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열사들을 폭도로 몰아온 건 이명박 정권이 거짓부리는 쥐망나니라는 갓대(증거)입니다. 예부터 거짓부리는 폭도 쥐망나니는 사람 사는 마을에서 쫓아낸다고 했으니 이명박 정권을 이 땅별(지구)에서 몰아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열사들을 땅에 묻어야 한다니 잠이 올 턱이 있겠어요.

이명박씨, 새해엔 국운이 열렸다고 했지요. 거짓으로 사람 잡는 나라의 밝은 새날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냐구요.

서민을 생각한다면서 죄를 지은 재벌은 사면복권하고 먹고 살겠다고 바둥이는 사람들을 폭도라는 누명을 씌워 두 번 죽이는 것이 법치입니까.

서민을 돋고저(위한다) 한다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울고 있는 빈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철도노조파업 바루(현장)에 나타나 파업 파괴를 손수 지휘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얼음구럭에서 떨고 있는데 길거리의 따슨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든가요.

서민 어쩌고 하면서 용산 학살은 끝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쌍용자동차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마치 미친개처럼 때려잡고, 언론자유를 뿌리째 뭉개고, 4대강을 죽여 장사꾼 몇의 배만 불리려 들고, 어기찬 민족문제를 미제 냉전구조에 옭아매고, 서민경제를 해체 미국과 국내 부패 재벌의 먹이로 거덜을 내고, 지난 예순 해 동안 피눈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갈마(역사) 그 민주 역량을 깡그리죽이는 그 독재. 그 오만은 무엇이오.

미국 모랏돈(독점자본)과 국내 썩은 재벌들의 쫄목(이익)에 니받(봉사)하자는 거 아니요. 안 돼, 안 된다구.

가뭄이 들면 흘떼(강)는 마르나 진보의 갈마(역사)는 우당(전쟁)으로도 못 죽이는 거요. 독재자의 칼이 사람을 죽일 순 있어도 사람의 알록(실질) 그 꿈은 못 죽이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의 저 오만, 부패 독재를 땅에 묻기 앞서 저 열사들을 땅에 묻을 순 없습니다. 그 뜻을 불씨로 일어나자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 이제 몇 날만 있으면 우리 설날이지요. 그날 따슨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나누고 싶은데 아, 열사여! 열사여! 정말 원통합니다.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 님들은 우리 가슴 속에 시대의 망루. 양심의 망루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죽음 속 죽음, 죽음만큼 처절하고 야만스러웠던 저 1년여 시간. 얼마나 괴롭고 또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죄스럽습니다. 한없이 죄스럽습니다. 허나 지금이라도 가시는 이 길, 그 모든 아픔과 눈물 다 내려놓고 부디 영원한 안식과 평화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님들은 우리 가슴 속에 시대의 망루, 양심의 망루를 세웠습니다. 물질과 돈놀이에 넋을 빼앗긴 채, 살아있되 죽어있던 이 무심하고 야박한 영혼들을 세차게 일깨웠습니다. 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계신 자리를 잊고 산 이 시대 사제들과 신앙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고, 들어야 할 것에 귀 기울이며, 외쳐야 할 것에 입을 열어 선포하게 했습니다. 가족애를, 헌신과 우정을, 자존과 신의를, 존엄과 용기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 안의 탐욕, 이 시대 진짜 괴물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거라곤 님들로 인해 통곡하고 아파하는 내 몸뚱이 진심밖에 없어서, 온 몸 누여 오체투지기도를 했습니다. 단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님들은 돌아오지 못한 저승 문에서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님들께서 이 이승에 남아있는 피붙이들, 마저 지켜보고 돌봐달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걸음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란 뜻으로 제 가슴 깊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님들을 떠나보내며 새로 시작입니다. 이제 님들은 떠나가시며 영원히 우리 안에 남으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따뜻한 마음들이 숱하게 늘어가는 거리에서 님들을 바로 보겠습니다. 거기 함께 웃고 있는 님들을 기쁘게 소리쳐 부르겠습니다

전주 평화동성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문 규 현



# 그곳은 부디, 이윤이 아닌 삶을 위해 집을 짓는 세상이길.....

이명박!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기나 했느냐! 너희들은 사람의 가치를 알기나 아느냐! 너희들은 움켜쥔 권력으로 추모를 금지했다.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이다. 촛불만 들어도 떼잡이 폭도라 노려봤다. '법과 워칙' 이란 고작 폭군의 채찍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를 남일당에서 태워 죽이고, 순천향병원 냉동고에서 영영 얼려 죽이고 345일 말려 죽일 작정이었지만, 용산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루 상복과 울분을 벗지 못하고 용산을 지켜준 유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건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가족만이 아니었지요. 당신들이 지켜낸 용산은 나의 신념이고 우리의 민주주의였습니다. 테러분자! 잔인하게 매도해도 흔들리지 않은 전철연 동지들에게 감사합니다. 개발이윤의 꼭대기가 아닌, 낮은 곳에서 시련을 자처했던 진정한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서럽게 갇히고, 잡혀가고, 함께 싸우던 살아있는 양심들, 함께 울었고 지치기도 했던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미안합니다. 이제야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모진고생 함께했던 남편을 잃고, 정겹던 아들조차 아비를 죽인 누명으로 잡혀간 그대들 아~그대들 앞에서 우리는 어쩌자고 지치고 힘들다며 푸념했단 말입니까. 어쩌자고 오늘 내 몸은 또! 한 줄기 칼바람에 춥다고 투정하는지…정말 미안합니다. 불길에 피부가 녹아내리고 냉동고에 갇혀 심장이 얼어 터져도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처연한 당신들 앞에서 우리는 왜! 무엇을 망설였단 말입니까.

이상림, 윤용헌, 이성수, 양회성, 한대성 나는 고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를 추모했던가요? 만에 하나! 그대들을 투쟁의 한 부분으로 여긴 냉정한 순간은 없었는지 자문합니다. 사람을 잊고 떠난 이웃을 망각한 민주주의는 공허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아파할 줄 모르는 정의는 무력합니다. 이상림! 윤용헌! 이성수! 양회성! 한대성! 나의 가족이여! 나의 남편이여! 나의 아버지여! 이제 여기에 없는 나의 이웃이여…

슬퍼하는 이들아, 억울해 목 놓아 우는 사람아! 잊지 맙시다! 철거로 벽이 허물어지고 뚫려도 우리에겐 사방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절규했지만 권력이 판을 벌이고 자본과 이권이 붙어먹는 재개발엔 사람을 위한 설계는 없었습니다. 쫓겨난 삶이 절규에 도달하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 땅의 현실을 잊지 맙시다.

다섯 분의 소박한 국민이여! 이제 그대들을 보냅니다. 그곳은 부디, 이윤이 아닌 삶을 위해 집을 짓는 세상이길.....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훨~훨 고이 가~소~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 열사들의 염원을 되새겨 민중 해방의 새 세상을!

2009년 새해 벽두 이명박 정권은 건설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앞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철거민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땅의 떳떳한 국민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열사들의 작은 바람은 가진 자들의 탐욕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난쟁이, 다섯 분의 주검 앞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은 이들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 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용산참사'란 단어만 들어가도 '묻지마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권력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유가족이 당한 슬픔과 분노를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살자고 올랐던 망루에서 주검이 되어 내려온 열사들 앞에 엎드려 오열하는 유족들을 바라보며, 또한 수백일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정말 장한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못해드리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소홀했던 점이 지면을 빌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행히도 철거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참사 첫날부터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 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의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또한 문정현 신부님과 천주교사제단이 용산을 성지로 만들어 우리의 싸움을 함께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불교 각 종단에서도 철거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위로하며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 중앙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두 여성동지들, 그리고 망루에 올랐다가 살인진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곧바로 철창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동료를 가슴에 묻고 가열찬 투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오신 전철련 동지여러분들께 끓어오르는 가슴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폭풍같은 탄압을 뚫고 1년 동안 거침없이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들의 실천적 연대와 헌신적인 사랑,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남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폭력진압 희생자인 동지들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폭력진압 책임자들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과도 진실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수사기록 3000쪽도 아직까지 꽁꽁 감춰져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더라도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철거민들의 현실과 특히 재개발의 문제가 도시 서민 누구한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열사들의 염원을 되새겨 민중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 



# 서울특별시 용산 4지구, 남일당, 355일, 쉿, 쉿, 바람소리 - 산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

오 우리애들 아빠. 난데없는 불에 타 죽으며 얼마나 뜨거웠으리 죽음은 시간을 벗어나 수 천 만년도 잠깐이겠으나 수 억 년 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 기약도 없는 비명의 이별은 더 아뜩한 낭떠러지인 것이오. 벼락같은 당신의 죽음으로 살아남은 나의 생 또한 살아남았달게 없는 생이겠으나 당신이 떠난 자리 홀연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역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된 자리로 내 몸 안에 들어서는 것이오. 죽은 당신의 의로운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불타는 당신을 3백 5십 5일 동안 이 세상에 세웠으니 당신의 고통을 백 배 늘인 죄가 이 세상의 나에게 있겠으나 나와 우리애들은 라면 끓이는 생계의 곤로 불에도 당신의 아픔을 새길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서울에 내린 백년 만의 26센티미터 폭설이 아무리 흩날려도 산발같지 만은 않을 것이오. 발이 푹푹 빠지지 않아도 우리가 태어나기전 조선 역사의 시간은 저렇게 하얗소. 그렇소. 고통으로 아름답소. 고층아파트 창턱에 줄줄이 길게 얼어붙은 목숨도 당신의 죽음으로 아름답소. 비는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같소. 하나님이 있다면 그 절대의 주제를 변주하는게 위대한 작곡가라 했고 그 변주를 다시 변주하는게 연주자라 했고 언제쯤 정말 듣는다면 듣는 자의 연주는 가장 위대하다 했오. 당신이 바로 그 언제쯤이오. 남일당 바람 소리 쉿. 여기 사람이 죽었다. 미래의 바람 소리 쉿. 여기 의로운 사람들이 죽었다. 쉿. 그 소리. 사람들에게 정말 들릴 것이오. 정말 널리 널리 퍼질 것이오. 가시오. 이제 편히 가시오. 이별의 물리학 혹은 천문학이 아무리 슬프더라도. 가셔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은 갔습니다

시인 **김정환** 



# 진실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고마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 배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이자리에 설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355일만에 장례를 치르게 된 지금. 갖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보낼 것이었다면 왜 1년이나 끌어왔나 원망이 듭니다. 화마에 불타고 칼에 찢겨진 내 남편, 내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 유가족들을 1년 이나 모른 척 하다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 한 마디 하기가 그리도 어려우셨나요?

지난 연말 고인들의 시신을 차가운 냉동고에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용단을 내린 유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애써 본 척 들은 척 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전 고인들을 '도시 테러리스트'라고 몰아붙인 기억들이 되살아나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만에 집에 돌아간다 한들 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요. 고인들의 육신은 땅에 묻어 드릴 수 있겠지만, 테러범, 살인범으로 낙인찍혀 땅바닥에 떨어진 고인들의 명예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텅빈 방 한구석에 자리잡은 내 남편,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쉽사리 씻을 수 없겠지요.

이미 할퀴어질대로 할퀴어진 용산 현장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떠나기만을 호시탐탐 바라던 건설업체들이 또 언제 어디서 이런 만행을 저지를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한을 안고 고인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저희 유가족,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밝혀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방에 갇힌 내 아들, 우리의 동료들이 하루빨리 무죄로 풀려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철거민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저 위 태로운 하늘 끝 망루로 오르는 일이 없도록 이 잘못된 재개발을 바로 잡아 주세요.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희 유가족, 앞으로 갈 길이 많기에 다시 한 번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유가족들을 보살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유가족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모든 분들께 그 고마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열사 유가족 일동

# 용산참사 355일.... 투쟁의 기록

#### - 2009년 1월 19일

국제빌딩주변 용산4지구 철거민 세입자 20여명 철거민생존권 보 장을 촉구하며, 한강로 변 남일당 건물 4층에서 망루 농성 돌입, 경 찰 1600여명 대치, 강제진압 시도

## - 2009년 1월 20일

새벽 경찰 특공대의 강제진압으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사망. 당일 저녁 용산에 수만의 시민이 모여 추모대회와 행진 진행.



## - 2009년 1월 21일

100여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등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약칭 용산범 대위) 결성.

#### - 2009년 1월 24일

용산범대위,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 개최, 3월까지 매일 촛불추모제와 주말 추모대회 강행, 참가자들 연행, 벌금, 구속, 수배 등 정권의 탄압 지속.

#### - 2009년 2월 9일

검찰, 철거민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짜맞추기 수사결과 발표.

## - 2009년 3월 20일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순천향병원 앞에서 체포 구속.

#### - 2009년 3월 28일

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사제단 용산참사현장에서 생명평화미사 시작



#### - 2009년 4월 8일

용산범대위, 정부의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시상가-임대상가 도입 등 재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 구속자의 석방 등 5대 대 정부요구안 발표.

#### - 2009년 4월 22일

유가족 및 용산범대위 대표단,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한 정부에 항의하며 참사 현장 무기한 농성 돌입.

#### - 2009년 6월 1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선언 발표 후 용산참사 현장 무기 한 천막 기도에 돌입함. 경찰과 용역, 사제 및 유가족, 철거민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

#### - 2009년 7월 20일

용산범대위, 참사 6개월을 맞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기 위한 천구의식을 진행. 경찰 원천봉쇄.



## - 2009년 7월 2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사회원로와 각계각층 대표자 시국선언 발표

#### - 2009년 8월 17일~20일

용산참사 해결 촉구 1차 전국 순회 촛불 투쟁, 광주/부산/전주/창원/대구/원주

#### - 2009년 9월 4일

수배 중이던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박래군, 이종회, 전국철거 민연합 남경남 의장 3명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김. 용산 유가족도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정리하여 용산현장으로 옮기고 현장 투쟁력 강화.

#### - 2009년 9월 15일~26일

용산참사 해결 촉구 2차 전국 순회 촛불 투쟁, 수원/청주/전주/아산/대전/목포/광주/제주/창원/울산/부산/대구/인천/원주



#### - 2009년 10월 3일

정운찬 신임총리, 추석날 오전에 용산참사 현장 방문, 유감 표명, 이후 정운찬 총리는 책임 회피.

#### - 2009년 10월 12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제12차 전국사제 시국미사, 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대표신부 삭발/단식 기도 돌입. 문규현, 나승구 신부 동조 단식 돌입. 단식 기도 11일째, 문규현 신부 심장마비로 의식불명(3일후 의식 회복)

## - 2009년 10월 1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진행.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소인 전원 유죄 판결.

#### - 2009년 10월 28일

용산 1심 재판 선고 / 망루 생존 철거민에 전원 유죄 판결  $5\sim6$ 년 형 구형. 불구속 중이던 철거민들도 법 정 구속됨.

#### - 2009년 11월 14일

용산참사 300일 추모대회 서울역에서 개최, 300일을 앞두고 300인 1인 시위, 대표단 단식 전개

#### - 2009년 12월 30일

서울시와 보상문제와 임시상가-공공임대상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 정운찬 총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개발 정책의 개선을 담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발표함. 용산범대위는 장례협상 타결을 수용하고. 장례준비절차를 밟기로 함.

#### - 2010년 1월 5일

명동성당에서 회의를 거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을 치르기 위해 장례위원회 결성.

## -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 (고문)

강순정 고영구 권오헌 김규철 김병상 김상근 김수행 김정순 김정헌 김택암 김현 나창순 남상헌 도법 도정일 명진 문대골 문경식 문정현 박순경 박영숙 박재승 박정기 박창균 박형규 배종렬 백기완 백낙청 서경순 수경 심용섭 안재구 안충석 양홍 염무웅 오종렬 윤정석 이돈명 이만열 이소선 이종린 이천재 이태교 이해동 임기란 임방규 임재경 장임원 전창일 정광훈 정현찬 정희성 조세희 조정래 조준희 조화순 지선 청화 한명수 한상근 한상렬 한승헌 함세웅 현기영 홍근수 효림

#### 〈장례위원장〉

- 상임장례위원장: 이강실, 조희주
- 공동장례위원장 : 강규자 강기갑 강내희 권낙기 권미혁 김성복 김성자 김승호 김영호 김정명신 김진홍 김호현 남윤인순 노수희 노회찬 문규현 박경석 박석운 박수일 박순희 박영미 박정조 박주미 박중기 박하순 방은성 배은심 배행국 백승헌 법안 변연식 송영 신학철 심호섭 양규헌 양길승 양철호 오세철 우희종 윤준하 이규재 이병수 이수금 이시재 이영 이철수 이해학 임성규 임종대 임헌영 장범수 장은숙 전종훈 정동익 정문자 정미 래 정상덕 정상복 정세균 정진우 정춘숙 조영희 진관 천준호 최광은 한도숙 한명숙 함인숙

- 공통집행위원장 : 강동전 고미경 김금옥 김동순 김민영 김성균 김인국 김종남 김종일 김형수 김혜진 명진 민만기 박진 반명자 배진경 송영길 양효식 오병윤 원용진 유성희 이선주 이성화 이현 이현대 장혜경 전성도 정대연 정명장 진영종 최상재 최승국 최영준 최인기 최현국 하승창 한경아 한택근
- 총무위원회위원장 : 윤용배 김덕진 김동환 김인숙 김인자 이종범 정명진 의전위원회위원장 : 최종진 김상열 김성수 김민선 박성호 박재석 박준선 오상훈 우문숙 이소형 주형 홍석만 황순원
- 홍보위원회위원장 : 양문석 이원우 이원호 장형창 장호경 최예륜 치산위원회위원장 : 박종부 김대식 김정현 박석민 이형숙 한현우
- 문예위원회위원장 : 이성호 강학수 김경화 김도균 신유아 이윤엽 전미영 전진경 레아미디어팀
- 는 데 마르네 마르는 이 마스로 아무리 트라는 다녀가 가는데 다녀의 단단을 내구나가다. 도구위원회위원장 : 성탁경 건축재 고경석 고기면 감절 감상원 감상실 감상식 감악수 감진덕 노진만 문장옥 박경수 박광진 박도철 박승우 박의영 박인이 박창귀 박치국 박태술 선우태영 손관헌 송상진 신장현 안상돈 양병우 양홍석 엄보상 오경수 오삼진 우기선 유근수 유석진 유재룡 윤영열 윤외수 이광식 이방열 이성선 이영호 이원구 이재현 이정수 이진식 이환식 임기정 정대영 정운만 조환 조규승 조인환 천진영 최윤수 최재혁 최창만 최천희 하훈호 한정수 홍삼표
- 대변인실 : 박래군 류주형

#### (호상) 남경남 박래군 이종회

#### (〈장례위원〉)

기경순 기장규 간호욱 강경표 강권철 강규혁 강금주 강기용 강덕준 강동만 강동만 강동한 강동진 강명희 강범석 강병로 강병월 강병철 강봉진 강상암 강상철 강석도 강석수 강석윤 강석란 강성봉 강수룡 강수통 강수형 강순 강순중 강신원 강인구 강원구 강용근 강용준 강용준 강용준 강점점 강점종 강점종 강점종 강정을 강정한 강점은 강점한 강전명 강청구 강청성 강철용 강태산 강태환 강태환 강태화 강해회 강해호 강현호 강현호 강현숙 강현주 강호원 경규철 고광식 고만문 고명호 고병수 고상인 고석진 고영귀 고영란 고의숙 고재능 고재성 고재일 고진오 고창식 고태선 고현호 공영옥 곽강선 곽규운 곽재군 곽재근 곽제 곽회철 구권서 구수영 구영규 구윤미 구자건 구자오 구자윤 구창옥 구하들 군수종 귀기신 귀기하 귀려소 귀성계 귀성화 귀수화 귀영호 귀영호 귀양한 귀양한 귀임선 귀임선 귀임선 귀매형 귀쟁화 귀절화 귀절한 귀종만 귀종한 귀태와 귀태의 귀하숲 귀형부 귀형병 근종은 기우선 기우선 기원로 긴간성 김갑수 김갑수 김갑수 김강수 김건옥 김건태 김경구 김경구 김경규 김경규 김경규 김경한 김경인 김경선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영 김광영 김광중 김광중 김광태 김광태 김광태 김광태 김국환 김규수 김경수 김금주 김금철 김기범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길한 김낙욱 김남오 김대열 김대열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김대홍 김대홍 김대홍 김동홍 김동본 김동석 김동성 김동순 김동수 김동우 김동주 김동주 김동존 김동한 김동호 김동호 김동호 김동호 김동호 김동호 김동한 김대형 김대형 김명훈 김명희 김명훈 김명희 김명훈 김명의 김명화 김병한 김명희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호 김병한 김병한 김병한 김병한 김병호 김병홍 김병동 김보동 김복동 김복동 -김봉님 김봉수 김봉윤 김봉환 김부한 김사홈 김상백 김상봉 김상봉 김상재 김상지 김상태 김상호 김상환 김상한 김상한 김상한 김성년 김석근 김석근 김선군 김선례 김선민 김선숙 김선태 김선화 김성규 김성기 김성기 김성락 김성부 김성렬 김성렬 김성렬 김성룡 김석수 김성수 김성우 김성윤 김성재 김성재 김성재 김성한 김성한 김성한 김성화 김세동 김수영 김수오 김순기 김순철 김순희 김승태 김승태 김애란 김양구 김양구 김연근 김연숙 김연태 김연홍 김영구 김영구 김영구 김영국 김영기 마화용 명소를 명한민 영환민 문장달 문건숙 도면도 가진 보이는 가장 구성을 보면 보다는 가장 보다는 가장 보다는 보다는 현실을 받는데 보다는 것으로 하는데 되었다. 바로 마장의 다음 마장의 바로 가장 마화용 명소를 명한민 영환민 문장달 문건숙 문문적 문상실 문선진 문상호 문수적 문상호 문영수 문장식 문역스 문학식 문학식 문학식 문학식 문학식 문학성 문해준 문학을 모현선 문학식 마설 민경인 민경우 민상호 민수현 민영기 민윤기 민태호 민향선 민해수 민해수 박강정 박강선 박경선 박경원 박경원 박광전 박광진 박군집 박근집 박근절 박금석 박금색 박금색 박기관 박기관 박기관 박기준 박노분 박대균 박대류 박대병 박대병 박진사 박진현 박진현 박천구 박천면 박천인 박천선 박천식 박천중 박천중 박천중 박천희 박황성 박철수 박춘옥 박태만 박태환 박해영 박해옥 박해철 박항주 박현로 박현로 박현로 박현의 박행기 박해경 박호순 박호철 박홍진 박효선 박율 박효진 박희근 박희은 반태연 방대곤 방은숙 배경범 배기복 배기한 배명값 배명찰 배명철 배명철 배상을 배성주 배성종 배성태 배성훈 배영억 배영억 배종숙 배종철 배종철 배종철 배청수 배현의 배현철 배흥국 배호정 배희철 배희철 백기홍 백남용 백범기 백부현 백성곤 백소영 백승구 백운희 백재웅 백종성 백종성 백종화 백주하 백한주 백현주 백현일 백홍만 변광석 변동한 변만섭 변문수 변미영 변성의 변성의 변성의 변성호 변운명 변종배 변종철 복기성 시강봉 서강용 서경전 사건역 서권은 서행십 서문수 서문수 서민수 서민수 서민수 서인 수 서민 수 시민 수 시한 지수한 사순영 서영남 서영만 서옥회 서정원 사진역 서권은 서행십 서운그 서문수 시민수 시민수 시민수 시안 중 시성태 서성태 사수한 사순영 서영남 서영만 서옥회 시장원 사진일 서정복 사주기 시즌원 선진규 서태원 사태원 사용수 식권호 석병수 석성은 식수은 식주면 선종성 실은주 성기석 성기태 성기환 성병록 성용제 성용제 성윤덕 성희옥 소금식 소민영 소상옥 손경렬 손경렬 손경렬 손경렬 손경 손동수 손병학 손병학 손성일 손승환 손영배 손영태 손영태 손영태 손영 호손조 연창용 업기용 엄장수 엄장수 엄청수 요경숙 오경숙 오경숙 오경화 오경희, 오광진 오광진 오광진 오래소 오병옥 오병옥 오병종 오병충 오병충 오성룡 오상룡 오성룡 오성훈 오세군 오세면 오세면 오성본 오승석 오승환 오영석 오영선 오영선 오영수 모형 택 오영택 오완근 오유린 오정희 오지면 오철안 오촌배 오촌배 오촌배 오한정 오형수 옥순영 우문숙 우상원 우성영 우영호 우희철 원성재 원재희 위주환 유기수 유병홍 유상준 유성천 유숙경 유앙훈 유원주 유원주 유원주 유정현 유재선 유 제출은 유명화 유종법 유지현 유지선 유진선 유현주 유현주 유호연 유회덕 육기선 윤갑상 윤갑인째 윤경식 윤관주 윤기오 윤미옥 윤선호 윤선호 윤선호 윤성관 윤여강 윤영규 운영남 윤영생 윤양조 윤영훈 윤용호 윤유식 윤장혁 문재설 윤재섭 윤정화 운종갑 윤종갑 윤종명 윤종명 윤종명 윤종명 윤주봉 윤지숙 윤진영 윤진원 윤전원 윤태석 윤판수 윤판수 윤한천 윤해일 윤효권 윤호권 윤화선 이 회 이강수 이강수 이강용 이강용 이건우 이건준 이건용 이경수 이경수 이경수 이경옥 이경옥 이경원 이경은 이경태 이경표 이경훈 이경희 이계영 이계영 이계영 이계형 이광한 이광한 이광한 이광한 이광한 이공한 이공한 이국문 이국문 이국는 이규산 이규산 이규한 이규한 이규한 이규형 이규호 이근한 이근학 이근행 이근행 이근행 이금성 이기성 이기성 이기성 이기주 이기준 이기중 이기중 이경한 이동한 이동한 이동의 이동된 이동이 이동의 이동 한동한 이동한 이동의 이동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의 이동 한당한 이공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 한당한 이당한 이동 한당한 이동 이원경 이원점 이원적 이원적 이원점 이원점 이원경 이윤경 이윤경 이윤경 이윤적 이은역 이은정 이윤적 이윤주 이은주 이은주 이윤을 이정 이용을 이언복 이언복 이정은 이정일 이제강 이제선 이제선 이제선 이제석 이제설 이제역 이제일 이제점 이제우 이제용 이제원 이제권 이제진 이제진 이제적 이제학 이제학 이제학 이제학 이제로 이전락 이정님 이정님 이정민 이정된 이정부 이정수 이정임 이정한 이정한 이정한 이정한 이정한 이중관 이종관 이종관 이종명 이종면 이종를 이종봉 이종봉 임효혁 장광수 장대수 장대수 장덕수 장두만 장문주 장민희 장민희 장백기 장병렬 장병모 장사원 장사현 장석철 장성기 장성유 장성유 장성의 장세웅 장세호 장숙희 장영국 장영대 장영렬 장용 장용 장우창 장원석 장인권 장인호 장 재영 장종식 장종식 장종철 장준호 장진영 장진호 장진희 장현술 장현영 장혜옥 장호식 장화식 장효배 장효배 전경봉 전경봉 전광식 전동철 전명수 전미주 전병수 전병수 전병철 전봉수 전봉실 전부일 전상통 전상 전순림 전승일 전양구 전연주 전주환 전창시 전창시 전태선 전태철 전태철 전태철 전형진 전호일 정호실 정권영 정광수 정길용 정길체 정길제 정길제 정길에 정되면 정문화 정미 정미영 정미자 정병록 정보훈 정보훈 정보훈 정보훈 정부영 정부중 정부중 정상국 정상국 정상용 정상촌 정상촌 정상학 정석 정석교 정석교 정석회 정선호 정성훈 정소영 정순복 정이연 정이연 정영국 정영국 정영과 정영홍 정완석 정용건 정용건 정용신 정용신 정용진 정용환 정원호 상수 조석태 조성권 조성규 조성만 조성만 조성만 조성마 조송과 조순회 조승호 조양회 조영수 조영호 조영호 조영형 조오영 조용성 조용건 조유란 조은국 조은제 조인전 조인선 조대명 조제술 조재술 조재술 조재술 조정의 조정미 조정분 조종철 조준성 조중환 조진옥 조진희 조찬휘 조창의 조체구 조체구 조천석 조천호 조한경 조한연 조항복 조현석 조현성 조형수 조홍영 조환구 조희영 좌철석 주미순 주용수 주재석 주재영 주재한 주재한 주유석 지선열 지수경 지영호 지영환 진광장 진기영 진남희 진선식 진영옥 진영현 진영한 진주면 차광주 차영순 차은남 차주원 채근식 채문기 채영수 채장식 체정하 채희석 찬석기 천종성 천종성 천종성 천주의 최강록 최관명 최권중 최규호 최기용 최기은 최기현 최기현 최낙천 최남권 최남권 최대현 최동식 최동준 최동호 최동호 최民 최만식 최민정 최미숙 최민철 최민석 최범석 최병희 최봉상 최봉현 최상재 최석규 최석영 최선규 최성 최성옥 최성황 최성황 최수황 최수황 



하강래 하강래 하기대 하동균 하동현 하옥봉 하재식 하대경 하한필 한근석 한근석 한근식 한근의 한민국 한민국 한민정 한방식 한상역 한상을 한상을 한상을 한성한 한식한 한식호 한식주 한성규 한성과 한승호 한영수 한완의 한송문 한유진 한윤수 한일수 한종현 한지옥 한창화 한황수 한황수 한화선 한희성 한윤식 하인구 하인무 하원형 하원형 하인 하장형 터지우 현길만 현성훈 현성훈 현업역 현인덕 현정의 홍건식 홍기복 홍명옥 흥미리 홍봉기 홍선지 홍성고 홍성대 홍성복 홍성수 홍성수 홍성호 홍성호 홍수영 홍수영 홍수경 홍수관 홍순광 홍순순 홍순영 홍순호 홍순호 홍순회 홍승은 홍영된 홍영원 홍유진 홍요고 홍전고 홍진관 홍찬기 홍초기 홍호구 황경식 황규금 황금인 황금주 황기대 황완성 형미숙 황병선 방병선 황선하 황성문 황성철 황수영 홍수관 황수관 황수관 황금한 황공한 황공전 황당신 황일노 황지도 황지수 황건우 황절후 황철희 황태하 황혁 (총 1944명)

#### (노동사회단체)

#### /±01\

당시용 강상수 고뱅국 곽길성 곽취교 권성근 권용식 권태만 기원주 김기형 김남홍 김도경 김무영 김봉로 김봉열 김봉용 김상우 김영석 김영재 김영호 김용빈 김용식 김윤용 김의용 김주성 김주청 김주청 김창호 김학현 김한섭 김해열 김현수 김행량 김희식 남궁석 남봉회 남성민 남주성 노기력 도종한 류문목 문경식 문경식 민동옥 박귀순 박기형 박기수 박민호 박중섭 박형덕 방동석 배충력 배형단 백중한 백형근 방충호 사성독 서정을 서성될 수성만 송순찬 신동선 선병후 신순자 신동법 신종원 신유원 신유부 양재환 양정서 연요호 오민영 오목적 오문 오운식 유민영 유원성 우조봉 오문화 용장적 요청주 이강자 인구용 이공주 아기해 형 이같은 이장부 이라면 이라고 이 마로그 이렇는 이랑은 이랑는 이상 이상정 이상한 이산재 이수갑 이수복 이송열 이영준 이영형 이제동 이재석 이종한 이중한 이중한 이중한 이중한 이항한 이한세 이행귀 이현부 이호원 이용기 임봉재 임재국 임홍락 장독화 경쟁진 장석현 장홍석 전광훈 전기환 전상도 전우기 전주영 전화배 정기환 정도화 정만식 정영석 정용기 정점옥 정진옥 정철근 정현찬 제해식 조광백 조상규 조성분 조성호 조진권 주경채 자광환 전병한 최성은 최연근 최영규 회양과 하영기 하원오 하재호 한도속 한문식 한송철 한진군 하귀형 취상동 유방 황성철 (1989)

#### (무하예소

#### (법조)

고 영구 권영국 권정호 김남일 김남주 김병주 김성수 김수정 김영수 김인숙 김재용 김진 루신환 류제성 박용일 박재화 박주민 박주희 서선영 서윤수 서인애 설창일 소리미 송기호 송병준 송상교 심재환 인상운 인주영 유현경 이덕우 이동화 이상회 이상회 이석태 이언민 이영기 이오영 장경욱 장서연 장연회 장유식 정주연 전명훈 전은미 정은경 정정훈 조연수 조연선 조준회 진선미 차혜령 최강옥 최병모 최일숙 한송헌 한택근 황멸규 황희석 (총59명)

#### (보건의료)

강경면 강문대 강현수 교수석 고영훈 공항한 감기한 김략회 김무영 2미경 김미희자 김선영 김세일 깊순신 김용준 김은희 김이동 김이동 김이동 김인성 김원권 김동영 김점홍 김태원 김태회 김형성 김홍주 노경호 노태병 문식가 문한 주 박경민 박김용 박남용 박상태 박석준 박신희 박용 박은희 박정현 박지선 박태훈 박현주 방예미 배숙경 백남순 박용을 탁제중 반례진 서대선 서홍관 산경화 순인환 순정주 승관록 승미옥 송필경 송용석 스즈까 신명식 신이 할 신재섭 신한점 신형관 십보구식 실제식 안소화 안재한 안준상 양동석 양정도 엄석호 오민우 오유마 오춘상 우석균 유산육 유어운 윤태현 이경구 이경훈 이문희 이상용 이서저경 이선장 아수근 이슬비 이명인 의용할 의원준 이은주 이온주 이희원 임선영 임순희 암재현 장은희 장재혁 전인용 전성원 전세계 전수경 전양호 전희선 정동만 참연호 청옥란 점운은 정인호 정제봉 정형인 정행준 조기종 조미선 주영수 차상조 채진호 천문호 최원경 청제호 희희식 학생 한수의 영향기 황제임봉 12명위

#### (80)

기회수 강경구 강경일 강금주 강덕남 강두선 강명제 강문자 강승렬 강선철 강영자 강일웅 강재구 강정자 강정회 강태자 강홍분 강후기 건촌재 전해심 고명옥 고문규 고보회 고일순 고재남 고정독 고천만 공영속 곽영순 구종시 구최천 권숙자 진행기 건경식 김경액 김경호 김경형 김공부 김광업 김경활 김경송 급하는 집 기정 김남욱 김목회 김인전 김명병 김명숙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화 김문은 김문호 김미영 리미혹 김미정 김미국 김병화 김병수 김병전 김보수 김생형 김부수 전환수 지원수 김생수 김생수 김성후 김성후 김정부 김정병 김원자 김병자 김명자 김명화 김문은 김문호 김미영 리미옥 김미정 김미국 김병화 김병수 김병적 김생당 김병에 김성학 김성학 전체 전체 기상 기상에 2성에 급성 기상 기상에 2성에 2성에 급성하는 김병수 김생수 김성학 김성학 김생수 김생수 김성학 김성학 김성학 김성학 김성학 김성학 기상 기상 기상 전체 2성에 2년 기상 1년 기상

#### (시민사회단체)

강규자 고의경 고혜경 곽분이 권석철 권순기 권옥빈 권정순 금민 김거성 김검희 김경심 김경준 김남규 김남근 김동언 김민영 김복자 김상근 김상희 김석봉 김선욱 김선희 김성균 김성호 김승국 김양희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의권)

강동일 강영옥 강선순 강영철 강원석 강종학 강진원 강진희 계영 고은체 행이는 구인호 김기철 김대홍 김동순 김동일 김명수 김민절 김상진 김선진 김선진 김선이 김수이 김수한 김수연 김수영 김승무 김승욱 김시형 김윤내 김은령 김승숙 김일숙 김재홍 김정숙 김정자 김정학 김종을 김준기 김진한 김장남 김형래 김형학 구체연 김희수 구분인 남중인 노금호 덩이랑 레오 류영주 류은숙 류재옥 리혜경 리혜림 림원선 명숙 문이범 문해ኝ 문혜이 미류 만선 먼지 박경석 박 명선 박문수 박이준 박석진 박순종 박심배 박영옥 박정기 박제민 박준호 박형호 배경내 배은심 배찬호 배혜정 백은과 백청숙 발 명상 대상 선생으로 사선회 사승업 사정호 성기 성원 성원 순격숙 승천 신유라 신인식 신정학 신 현기 심경화 심승자 심장구 아오 만스전 안재구 안란호 여분 여대숙 안정 영통 명원 영탄 오병열 논생을 오선택 오원호 오청의 오늘 유명을 유명을 유명을 유명을 유명을 유명을 모임 문생봉 운정원 은전 이경미 이경환 이러임 이기가 이명남 이묘랑 이미나 이식주 이성일 이소선 이면제 이연희 이영 미양교 이문의 이은주 이재성 이정인 이정일 이주영 이지성 이지는 이지환 이청수 이태하 이현진 인복 임기란 임선순 임재홍 임태훈 경경옥 장남수 장인수 장이경 재 영 재원스님 전근배 전영회 정금교 정민구 정순녀 정인 정재 국정정원 정현 점마 소규천 조면제 조사랑 조목의 조영선 조인식 조정훈 조혜은 작동은 지흥 지원 지현 진원 진란 진찰은 건호 최명호 최병진 최봉규 최용철 최은아 최지준 최혜의 하라 하속은 하형석 한날 한재롱 함설을 해 대연 취치 하신의 하임인 취중 호아 호연 후전호 홍석 호송 경수 홍은 장이 홍지은 황규만 황미선 황수은 (총 209위)

(언론)

지근다. 지금도 김동찬 김영호 김정호 김철관 김철환 노영란 문영희 박영선 박종만 성유보 송환웅 오승우 우장균 유영주 이명순 이범수 이재명 이준희 임순혜 장연희 장윤환 정통의 정연구 정연우 최상재 최성주 최은주 허경 현상윤 (총 31명)

6-110

(정당)

(GGZ) (민주당) 강기점 강봉균 강성증 강운태 강창일 김동철 김부점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토 김영한 김영화 김우남 김유점 김재균 김재윤 김진에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호석 김희철 노영민 문화진 문회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 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송영길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시중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촌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회 전혜숙 정범구 정세균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흥영표 홍재형(이상 국회의원) 김김봉 임정 소 저으추

〈창조한국당〉유원일 이용경(이상 국회의원) 김근미 김서진 김영주 송영 안병철 오점균 조기종 홍재경

《사회당》권문석 김광백 김선욱 김완수 김용기 김인 문미정 민경철 박유호 변상훈 윤남용 이민정 이석범 이선주 이은영 이응호 이지원 이항회 장시정 조영권 최광은 (총 863명)

〈종교〉

(기독교) 김경호 김광수 김광철 김교형 김길구 김다인 김동한 김명환 김병균 김병균 김병균 김성복 김성복 김성복 김성북 김성병 김영한 김영한 김영한 김오성 김용성 김안하 김재환 김정명 김종구 김종수 김종한 김진해 김진홍 김참규 김창현 김 철호 김태현 김한승 김홍술 나백집 남재명 남재명 노영우 노혜민 류장현 문흥근 박덕신 박득훈 박상필 박승규 박승렬 박종관 박천희 박철 방영식 방영종 방인성 방험선 백남운 백장옥 서일웅 성낙현 손규호 손은정 안해된 안해용 양 재성 양진규 오홍수 우성국 윤인중 이간족 이관력 이모던 이만열 이보고 이상진 이선애 아승진 이종희 이창언 이천우 임광번 임송철 임인수 장익성 정금규 정상복 정우찬 정운형 정지강 정진우 정충일 정태호 정한식 조규춘 조수현 조정현 조현정 조현정 조화호 체계통 한국염 명수 한성열 현순호 홍기원 황인근 황필규

(불교) 가섭 김경희 김나영 김애경 김옥정 김정님 노옥재 도법 박석동 박수일 백혜은 법경 법상 법선 법안 부경 오태양 유곡 이상환 이승룡 자성 장도연 재범 장산 정안숙 정휴 지선 청화 청화 퇴휴 하림 현희런 혜용 혜조 효림 효진

〈천주교〉강정근 고정배 권오준 김병상 김봉술 김석태 김영식 김인국 김준한 김진화 김태균 김택암 김훈일 나승구 맹제영 문규현 문정현 박요환 배광하 변찬석 심용섭 인승길 안총석 양흥 오남한 유이규 이강서 이상원 이영선 임문철 전종훈 정도영 정석현 조명연 최지철 하춘수 한상근 함세웅 현성훈

(원불교) 강혜경 강혜윤 김성길 김현 서예진 윤명은 윤법달 정상덕 채일택 최서연

(중 109명)

장관식 강승규 강태연 강태호 강한석 고경아 고상덕 고성완 국찬석 권승길 권혁용 김경미 김경엽 김광원 김남임 김다슬 김동규 김동현 김명철 김미영 김신 김성연 김성태 김성희 김영연 김영수 김용건 김은구 김은경 김은미 김은총 김의철 김일한 김재균 김정숙 김정우 김정원 김정현 김종선 김종보 김종보 김종보 김지정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지부 김진호 김철환 김철준 김현정 김용연 김희배 난다 남길현 남은들 노병선 노영한 노전철 탈탈라 문흥 근 민지영 바다 박규웅 박 김형촌 박궤철 박미수 박민수 박준구 박정근 박준흥 박지숙 박진 박철영 박혜경 방용승 배입숙일 배정한 배현옥 백숙현 범명임 불남 서명석 사정리 서정희 소병돈 송영옥 송원찬 송인수 신흥 안정희 안증기 양민재 양은희 양 진규 양훈도 열태영 오랜지가용아 오명인 오병천 오수연 원병희 원준희 원건속 원학은 배인숙일 배정한 배현옥 백숙한 범명임 유부국 육이수 유청한 소병된 운영상 운영인 원인증 본정의 인정이 양희 이근로 이기된 이기는 이나 회 이득재 이민아 이번희 이본원 이상명 이산명 이성 이사무 이승규 이순화 이연식 이윤적 이정화 이종란 이종호 이혜령 이호현 이홍정 인제현 임남희 임문혁 임순 임재은 임화모 장독인 전이라 장세희 장지철 전호진 정경석 경기동 정남회 정석인 정지당 정천홍 정현경 정혜민 경후진 펜플메니아 조지훈 조진경 조한연 주피터 진운정 차상철 차순영 촛불층각 최감성 최미정 최면 최병건 최용순 최인규 최정도 최종숙 최중교 최현모 광강공주 플로라 한은규 허금희 하기가 하진 홍재은 홍민주 황연근 황병은 후인자는 항상을 우리자이송 194명)

(청년)

장마경 강병한 강종환 고경아 고영균 고용인 고현진 곽진우 권병성 권혁술 김경훈 김민수 김병주 김보인 김상일 김사정 김선경 김성희 김애정 김영환 김은정 김재현 김정만 김종를 김준희 김진만 김진주 김철기 김호현 김홍희 김효장 김효장 남성이 맹지희 문에는 대변호 박무용 박민정 박병률 박은자 박정열 박중독 박중익 박한석 낙해명 박희진 배권을 배재국 변자영 서기옥 성상영 소재선 손종환 송영현 송현숙 안소회 인재일 안혜영 양호열 엄승용 오종진 오형준 우미정 원병준 유소영 유왕용 윤희숙 이병교 이상덕 이선화 이상한 이송법 이승물 이영진 이영권 이윤화 이정원 이중산 이준호 이태길 이효진 임혜민 장대진 장정수 장호수 전말봉 정현미 조광진 조영희 조영호 조정홈 조종단 조종단 진희권 천준호 최국철 최슬기 최왕선 최재인 최재희 주인석 단현해 하준대 하성화 홍기호 황규범 황정원 (총107명)



#### (평화통일)

#### (한생)

강민지 강보람 강선묵 강수 강수형 강혜원 경훈 공병윤 락세열 곽호정 구석모 구승인 구승현 구하리 권용직 권한규 김광태 김다은 김대은 김대용 김동관 김동관 김동환 김당훈 김민강 김문승 김민정 김민주 김보아 김상우 김석인 김성현 김수번 김우리 김원과 김용리 김유미 김재한 김준호 김개현 김조형 김전형 김전형 김정섭 김현철 김현철 김현를 건축하는 나는에 노승아 노승한 노력호 동절 동혁 두 한 류대형 문병호 문자은 미지 민수 민수 박교는 박병훈 박상환 박성혈 박세 명 박영아 박인우 박제로 박준석 박지인 박현석 박병한 배생권 단설 상우 성해 상혀 서명호 서정호 사용을 부지로 사용을 사지로 사용을 수 중을 속에 선시하는 이에 시용한 신청의 신원인 안전점 아목들 영언 예주면 오존식 문법 원조 유럽선 유리 유승적 유예술 유재준 두체훈 유지인 유진주 윤호연 운명식 운영수 은아 은지 의미 이근용 이나 이민영 이상목 이상철 이상국 이소정 이수면 이수열 이승환 이에릴 이원용 이정점 이중은 이주리 이준혁 이지영 이잔구 이진호 이진희 임원빈 임지혜 입한물 정원준 장혜정 정경인 정다여 장유경 정의정 정재운 정지은 정진경 정환용 정희원 조나은 조인민 조자원 조지인 주희 지수 지운 진영 진흥 천호성 최성규 최성준 최윤안 최지인 태명 태형 태호 태환 하인한 한결 한빛 해성원 화소인 현모 현지된 현호 혜민 혜주 홍림 홍철호 환대용 황수공 황수진 황주상 본성(총 165명)

#### /하수\

강신준 강우성 강창덕 고부용 권인호 권태만 김교빈 김누리 김민수 김보경 김상봉 김서중 김씨균 김영이 김용식 김은형 김종관 김종석 김종석 김종석 김준 김학노 김현주 김호기 김희정 남구현 남성민 노중기 도정일 문군규 모현순 문현아 박경순 박기병 박노영 박미정 박상환 박수영 박종철 박준건 박진도 박찬희 박호성 배성인 백낙청 백도명 서유석 사인석 서정근 순호철 송기철 송수영 송순호 송영기 송철원 신경현 신경숙 안병우 양미경 양재혁 양해림 업무용 오창호 우혜종 유세종 유화수 은우근 이강수 이기영 이나미 이대유 이덕재 이도홈 이득재 이배화 이병전 이상헌 이성로 이승철 이영석 이은영 이정희 이준형 이전경 임복남 임종대 임춘성 장규식 장상환 장시기 정임원 정독화 정병기 정상기 정상진 정영수 정재영 정준 제해식 조돈무 조승례 조효제 조희연 주은우 진경환 진영종 진영종 자봉준 최립수 최권행 최기동 최무영 최병두 최보경 최영찬 최윤화 최태롱 최현석 하은숙 하해롱 한상권 홍성민 홍순권 황산이

#### (시민 일반)

강갑 강경구 강경균 강곤 강길환 강동권 강동진 강독구 강민사 강봉주 강상원 강석도 강성준 강성희 강신우 강영에 강위원 강은미 강조성 강주수 강현용 강형육 강황에 계광숙 고광성 고길섶 고노다이스케 고대언 고병찬 고성 전 고세진 고아다 고은술 고일순 고정갑회 고주희 고창곤 공유라 곽명우 곽윤호 구경모 구교현 구름 구성목 구정화 구태환 국미란 권갑중 권경에 권금상 권기에 권남우 권소정 권오근 권력흥 권평정 권현수 권혁기 권학철 권형구 권 폐경 권호신 그루 기세환 기영철 길형준 김검희 김점철 김정선 김경숙 김경희 김고종호 김광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철 김권 김균도 김근태 김기통 김기룡 김기선 김기언 김기정 김기정 김기종 김기홍 김니영 김남운 김남운 김남운 김남운 김남 다정 김대선 김덕진 김덕화 김도연 김도윤 김도현 김동연 김동언 김동수 김동안 김동우 김동원 김동한 김동한 김동화 김두나 김래곤 김명렬 김명연 김명환 김명희 김무상 김미경 김미경 김미국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 김성현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세연 김세연 김세현 김소연 김송희 김수민 김수박 김수연 김수연 김순현 김승한 김승한 김승환 김시형 김신자 김연후 김영곤 김영권 김영무 김영미 김영미 김영숙 김영실 김영애 김영자 김영점 김영점 김영지 김영진 김영편 김영훈 김용기 김용미 김용민 김용석 김용인 김용일 김용진 김용한 김용한 김영 김우진 김원중 김원진 김원표 김유철 김윤에 김윤이 김윤조 김윤화 김은령 김은석 김은승 김은주 김은형 김 김이준수 김의완 김리씨 김일숙 김일준 김짜용 김짜열 김짜형 김짜형 김재호 김재호 김정순 김정일 김정일 김종일 김종단 김종단 김종단 김종만 김종선 김종선 김종성 김종영 김종은 김종인 김종중 김종인 김이준수 김의완 김진씨 김종미 김중호 김종호 김자연 김지영 김자유 김지유 김지유 김지원 김지현 김지현 김진원 김진의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진화 김진화 김철웅 김철홍 김태균 김태선 김태정 김태준 김태현 김태전 김태현 니 김학규 김학수 김한수 김한울 김한태 김해정 김행준 김현미 김한석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한정 김현철 김형석 김형성 김형주 김형중 김형철 김형호 김혜민 김혜인 김혜진 김호선 김호정 김호철 김홍기 김홍모 김홍석 김 홍술 김홍진 김효문 김효상 김효전 김희전 김희전 김희선 김희선 김희석 나에널때 나정태 나정태 나정된 나장의 남의 남의 남의 남수영 남순한 남영우 남은형 남현점 남전에 노권한 노권전 노구영 노명구 노순택 노원구 민 노윤조 노정자 노태술 노현정 단필빵 단새라 대책협 도경 도광선 도루피 도천수 돌 라흐쉬나 류근란 류정순 류준화 류중혁 류현순 류현영 류현주 류희영 리대석 리혜경 리혜림 림원섭 맹보명 맹행일 명훈 모정미 문병준 문생준 문 세경 문세경 문은현 문정은 문종석 문지원 문창호 문혜청 문헌정 문호만 미리암 민경자 민병설 민선 민용순 민철홍 박건희 박경롱 박경자 박계영 박공기 박귀숙 박근태 박기범 박기범 박기점 박기천 박노혜 박다인 박덕환 박동복 빅 동년 박명기 박무 박무 박미령 박민서 박병두 박복선 박복희 박봉진 박삼주 박상근 박상필 박성의 박성력 박세면 박세종 박소연 박수민 박수인 박수정 박순두 박송진 박신웅 박연의 박영대 박영호 박예린 박옥순 박용금 박용 민 박원일 박원대 박윤선 박은숙 박은영 박재언 박재현 박재현 박재형 박점규 박정일 박정해 박정현 박종권 박종절 박종절 박종절 박종절 박종희 박종희 박주의 박준우 박준희 박준우 박준철 박준홍 박지연 박진규 박진영 박찬국 박 전 등 박찬이 박찬의 박찬의 박채순 박철순 박태운 박하실 박해성 박현수 박형만 박형자 박형과 박형과 박현의 박경 박희는 반다 발착한 밥꽃양 방량 방은이 방안성 배기표 배이정 배독자 배시병 배어진 배우 리 배임숙일 배준호 배지현 배해정 백니미 백운성 백창옥 범이 범회대 법률 법처국가 변기영 변순섭 변연식 변이십 변진경 변진홍 보경 복진오 부미경 부장원 서명자 서명호 서민호 서법석 서병철 서분임 서상호 서상회 서수보 서승 오 서행용 서용지 서용원 서유리아 서윤경 서은경 사재경 서주형 시진아 서춘희 서헌성 선민지 선승범 선제 선재식 성승현 성염 성염 성지면 세한도 소소 손권수 손토빈 손성민 손승민 손영익 손율 손주완 송경옥 송기영 송기은 송년 근 송문석 송미영 송병섭 송영우 송유나 송인철 송정자 송창국 송해임 송화임 송후용 송희준 송희준 송희준 송한 순경 신타 신근식 신동명 신동석 신동일 신민수 신민수 신민수 신영국 신숙화 신영옥 신용균 신용터 신원호 신율 신인식 신 경아 윤경열 윤관석 윤구병 윤기욱 윤기중 윤기현 윤덕준 윤복현 윤언화 윤성현 윤수연 윤영삼 윤예슬 윤인숙 윤인중 윤재철 윤정원 윤종세 윤지상 윤진주 윤진철 윤한근 윤혜경 은종복 이경숙 이경임 이경희 이계안 이관범 이광송 이광재 이규장 이기성 이남우 이남희 이남희 이담아 이달별 이대수 이덕희 이도엽 이동수 이동천 이맑은누리 이명에 이명재 이문열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영 이미영 이민제 이범언 이병권 이병수 이병윤 이봉용 이봉호 이 부영 이부영 이비함 이빈파 이삼열 이상권 이상인 이상아 이상욱 이상현 이상호 이서일 이선미 이선옥 이성길 이송희 이수연 이수은 이수진 이수현 이숙경 이순 이순옥 이슬기 이슬이 이승수 이승주 이승혁 이승훈 이싼 이어진 이억 배 이여란 이영경 이영범 이영자 이영화 이영호 이옥희 이오훈 이용ਣ 이용중 이용철 이용확 이우선 이원우 이원준 이원희 이유진 이윤 이윤경 이은형 이은희 이용두 이언순 이인호 이징호 이정오 이제공 이재규 이제금 이제금 이제를 이해 이제한 이제로 이제를 이용하는 이경으 이정으 이정으 이정으 이정의 이제로 이용되는 이용형 이종형 이종형 이주강 이주는 이준현 이준한 이지만 이지면 이지면 이지면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지한 이진 이전 이전자 이진주 이참스 이참식 이 창영 이철학 이철호 이촌숙 이홍남 이홍현 이처일 이태한 이토실 이평세 이필완 이해삼 이해성 이현경 이현규 이현배 이현아 이현행 이현훈 이협 이형우 이혜경 이호성 이호면 이호중 이효재 이후경 이훈창 이회옥 이희정 인병선 인 정옥 일송정 임근정 임기환 임덕균 임미숙 임보라 임선일 임성대 임성종 임신규 임재원 임재정 임종호 임종회 임종회 임지영 임천웅 임태용 임태환 임후상 자그니 작은백 장경연 장동규 장동성 장동성 장동성 장미린 장병운 장선 장 성렬 장성민 장성아 장성의 장순자 장안석 장여진 장영복 장영자 장일호 정일호 장재만 장정혜 장제윤 장지영 장진수 장창원 장현영 장현철 장황철 장혜경 장호철 재정호 전누리 전만기 전석병 전소회 전수인 전순한 전순혜 전오성 전유미 전종옥 전준모 전진우 전한선 전호산 전호진 전흥배 정강인 정경모 정경영 정경주 정경진 정경희 정다신 정덕주 정동영 정명희 정미영 정미화 정박상문 정백근 정병옥 정석구 정선수 정성태 정성희 정세균 정송도 정승은 정승 회 정시명 정열을 정영현 정옥순 정몽식 정우명 정우준 정윤십 정은미 정은설 정은설 정은속 정은주 정인 정일옥 정재옥 정정에 정정환 정종배 정종속 정주면 정중규 정지창 정지훈 정치진 정택수 정택용 정한나 정현지 정혜정 정충 영 제길현속 조경애 조경애 조귀제 조규환 조남규 조대원 조립식 조문숙 조민지 조백기 조성필 조성애 조성우 조세종 조숙미 조양순 조영옥 조원배 조원종 조유나 조제연 조청현 조현춘 조현규 조현수 조현재 조현진 조혜민 조혜은 조홍진 조활 조홍규 주세연 주진완 진우섭 진정현 진주영 평훼 차재인 채리미영 천기창 천창영 최 홍선 최규명 최금심 최금자 최금학 최기수 최기일 최기호 최길째 최다혜 최단비 최덕현 최도연 최문선 최문주 최민 최민 최본 회봉기 최상 명 최석윤 최선영 최성규 최성에 최성용 최성욱 최소영 최솔비 최순심 최순양 최슬기 최승원 최승훈 최신현 최영선 최영전 최영준 최용력 최용환 최우영 최원경 최인숙 최재윤 최정기 최종덕 최종인 최종철 최주영 최주호 최 준영 최진섭 최진성 최진수 최진영 최춘식 최충인 최현모 최현정 최현호 최흥찬 최흥찬 최흥한 최희정 최희태 펼쳐라 표수진 허금철 하기홍 하나이나 하명수 한경섭 한경섭 한고규선 한광옥 한금선 한대수 한단속 한병우 한상석 한상우 한상 욱 한순미 한순영 한유리 한유미 함유숙 함효건 해미루 햇살 허강숙 해미엔 허윤선 허정식 허정일 허진우 허활석 현 훈 현미향 현상두 현원일 현장하 현필화 혜리 홍 선 홍덕 홍미나 홍선미 홍선영 홍성룡 홍승권 홍영과 홍영 래 홍양래 홍원기 홍익표 홍자야 홍재웅 홍지현 홍진원 화덕현 화소영 황규간 황규만 황대절 황두만 황미나 황민성 황상근 황성선 황성철 황순규 황인오 황임란 황정은 황철우 황현일 황희석 효암 효정 희망전 희선 홍경혜 윤원혜 신 정현 이재교 김판수 양승철 연봉현 염규현 민경준 박기혁 류승현 조용민 윤덕원 김잔디 반향기 류지현 (총 1217명)

장례위원회 총 합계: 8,556명

# 영결식 식순

사회 | **김태연**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개식선언

민중의례

개식사 | **이강실, 조희주** 상임장례위원장

열사약력보고 | **성락경** 전국철거민연합 사무국장

경과보고 | **변연식** 공동장례위원장

조사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조시 | **김정환** 시인

조가 | **박준** 

조사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당대표

진혼무 | **김미선** 

조사 |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유가족인사

조가 | **안치환** 

호상인사

분향 및 헌화 (연주 : '향')

# 노제 식순

사회 |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개식선언

민중의례

조사 | 임성규 공동장례위원장

조가 | **최도은** 

조시 | 송경동 시인

조사 ㅣ **문정현** 신부

진혼굿 | 춤패 출

유가족인사

조가 | 노찾사

(호상인사)

분향 및 헌화